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팔걸어' 실업자 등 근로사업 참여 유도

임실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인 공공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특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소독이 낮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원활한 취업지원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공공근로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모집 공고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했다.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 자격조회 등 심사를 거쳐 총 15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총 7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를 하게 된다. 사업장은 청소년수련원 등 7개 사업장으로 환경정화와 시설물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된다.

군은 이어 9월에도 4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9월 모집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된다.

군은 앞서 1·2단계 사업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총 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640-2463)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민선6기 출범 3년 '순창을 바꾸다'

### 황숙주 군수, 기자 간담회에서 성과 공유·계획 설명 장류산업 국비확보·문화지수 향상 등 분야별 결실

"민선 6기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가 넘실대고 군민이 잘사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순창에 살아서 참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가 4일 민선 6기 3주년 황숙주 군수가 4일 민선 6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6기 3주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기간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6기 황숙주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대내외에 능력을 과시했다. 가장 큰 성과는 순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류산업을 혁신하는 국가예산 확보와 기반을 구축한 점이다.

군은 발효문화투자선도지구와 참살이 발효마을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63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프

로젝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문화 불모지였던 순창을 짧은 기간 내에 문화지수 전국 상위 10위 안의 군으로 만들고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위상을 높인 점도 높이 평가된다.

순창군은 민선 6기 동안 군립도서관, 작은영화관, 청소년문화의집, 미술관, 작은목욕탕, 일품공원 등 문화시설이 대폭 늘고 다양한 문화공연이 일년 내내 열리고 있다. 또 지난해 도내 신상아가 증가한 군은 순창군이 유일하다.

강천산이다. 섬진강을 더하는 관광자원의 다변화로 300만 관광객을 넘어 500만 관광객에 도전하는 순창의 관광산업 또한 민선 6기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순창농업 경쟁력의 핵심인 친환경농업은 본궤도에 진입해 전북지역 최대 인증면적을 확보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 농업의



황숙주 순창군수가 4일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주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질적 성장을 가져올 대규모 사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또 유기농특구 추진도 시작되면서 순창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성집화 없는 순창

만들기, 클린순창 운동 성과, 예산 3,000억 시대 개막과 국가예산 확보 등도 민선 6기 성과로 평가 받는다.

황숙주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민선 6기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순창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남원 복합문화공간 밑그림

### '라키비움' 건립 중간보고회서 설계안 제시

남원시가 가장 남원다운 이야기를 담아낼 복합문화공간을 선보인다.

남원다움 라키비움은 광천부원 주변 고샘지역에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 지방비 15)을 투입해 조성될 계획이다. '라키비움'은 정보제공, 기록열람, 전시 등 도서관 및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의 기능을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시는 3일 이환주 시장과 관광, 건축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다움 라키비움 건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번 설계안은 지난 착수보고회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본구상(안)을 보완·수정했다.

남원다움은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따라 사라지거나 복원되기 어려운 남원의 공간과 일상을 기록해 이야기로 만들고 공유하는 보존시설이자 관광자원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건축물은 고샘지역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자연스러운 경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지내 오래된 한옥을 보존하고 전시관 신축은 최소화 한다.

1940년대 건축된 한옥은 최대한 그

대로 살리면서 내부를 현대식으로 보수해 지역주민들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쉼터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시관 앞마당에는 과거 셋길로 이용했던 골목길을 만든다.

이곳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골목길 갤러리를 조성해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를 물론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다움은 지역주민의 친숙한 문화공간을 넘어 관광객에게는 이색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내부공간에는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과 일상을 재현한 콘텐츠를 구성해 남원시민들에게는 추억을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료는 연중 남원시청 총무과(☎620-6083)에서 수접 중에 있다.

남원시는 오는 8월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해 금년내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착공해 내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소통도 스마트하게~' ... 임실군 SNS 활성화

### 지역민 소소한 일상스토리 게재시 특산품 치즈 등 혜택 풍성

임실군 페이스북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소통창구로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주민중심형 임실스토리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군은 SNS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페이스북을 통한 생방송 소통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매일 주요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을 SNS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빠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제작해 올리고 있다.

매일 한 건 이상의 현안사업, 정책, 군정방향, 생활정보 등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고 지상과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임실군은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를 기획해 페이스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군민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모두가 만

드는 임실이야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모두가 만드는 임실이야기'는 주민들이 다양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임실에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스토리들을 엮어내는 '모두가 만드는 임실이야기'는 임실에 관한 추억, 역사, 공연, 인물, 문화, 일상 등 연관된 소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감동적이어도 좋고, 담백해도 좋다.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을 글과 사진 등과 함께 제작한 콘텐츠를 임실군청 페이스북 공개그룹에 올리면 된다.

선정되면 임실군청 게시글로 등록되고 특산품인 치즈 등의 선물도 받을 수 있는 등 일상의 스토리를 통한 기쁨을 두배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가자는 지역, 나이, 성별을 떠나

'임실'을 매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군은 주민과 한층 깊은 열린 소통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NS 이용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로 확장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시책과 정책정보를 비롯해 '제3회 임실N치즈축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 정책, 군정, 문화, 역사, 예술, 공연, 인물, 일상 등 임실에 관계된 이야기는 모두다 환영"이라며 "일방통행식 운영을 탈피하고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홍보 및 추진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참여는 홍보팀(☎640-2065) 또는 임실군청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pefulimsl/)으로 하면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남원, 여름휴가 관광객 유치 총력

남원시가 자랑하는 대표 관광상품인 신관사포부임행차 공연단이 2017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 올 여름 휴가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국민 관광홍보 퍼포먼스를 벌였다.

공연의 기회를 맡고 있는 장종욱씨(사포역)를 비롯한 공연단원 20명은 오전 6시 30분 남원시 관광협의회를 출발해 11시경 천왕봉에 도착, 공연복 차림으로 등산객들에게 홍보부채를 나눠 주며 여름휴가를 남원으로 와 줄 것을 당부하는 이색적인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해 지리산을 찾은 많은 등산객들과 오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추진한 천왕봉 홍보 퍼포먼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남원을 알리고 남원관광발전을 위해서 무엇 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가스자원화 연구 실패 사업비 회수 가시적 성과 얻어

남원시는 생활폐기물가스화 연구사업 실패 관련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32억 6000만원을 우리시로 반환하겠다고 합의했으며, 환경부로부터는 국비 48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본 연구사업이 지난 2016년 5월4일 실패로 평가됨에 따라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발빠른 대책을 강구한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환경부 4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회, 국회 3회 등 방문해 투자금 회수관련 대책을 건의 했고, 특히 환경공단, 시공사, 남원시 간의 수시로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상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었다.

지난 6월 14일 환경공단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해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이행보증금 등 40억, 시설 매각대금 16억, 연구비 잔액 2.2억 등 총 58.2억원 중 우리시 투자비를 50%인 32.6억원을 우리시에 향후 소송 및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반환하겠다고 제안해 협의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